

지역 매아리

고창군의회, '5·18 망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20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망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망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번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및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한 공개 사죄와 세 의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공직기강 확립 위한

3대 비위 근절 혁신 방안 마련

정읍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하고 공직자 3대 비위 근절 등 공무원 품위 유지를 위해 총력을 쏟는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최근 정기인사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 모두가 분연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7개 반 1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고 이날 18일부터 28일까지 감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사항과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 이석 등 공직기강 해이사항을 집중 감찰한다. 또 민원업무 처리 시 지체와 방치, 민원응대 시 불친절 등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소와 읍면동 주무담당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열었다.

김 부시장은 지난 1월 9일 확대간부회의 시 강조한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과 청렴 교육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또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과 인사 상 페널티 부여, 복리후생 제도 축소, 사회봉사활동 명령, 공직비위 징계현황 공개 등 직접적인 제재 방안과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서 이동에 따른 환·송별회 시 공직자 품위 유지는 물론 숙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학농민혁명 시발점 재확인

유진섭 정읍시장, 황도현전승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관련 기자회견 가져

지난 19일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유진섭 시장 기자회견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신함식 부이사장과 고부봉기념사업회 박종신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정읍유족회 심재식 회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은 정읍시가 제안한 황도현전승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환영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은 물론 향후 선양사업의 방향 등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유 시장은 이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도현전승일(5월 11일)로 선정됐다는 것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혁명의 망명으로서 자치단체와 동학단체 등 전국민들과 함께 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과 선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시장은 "황도현전승일의 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중국의 태평천국운동, 프랑스혁명과 함께 세계 3대 혁명으로 가는 주춧돌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기념일 제정이 특정 지역의 승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유진섭 시장 기자회견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리나 패배가 아닌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동력이 되고, 농민군들이 꿈꿨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선양사업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2020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끝까지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혁명으로 받들음 시키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동학UCC 제작

이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장학습 프로그램 포함 등 청소년 대상의 선양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오는 24일 종합경기장과 내장산 일원 구간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황도현전승일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을 상대로 황도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고조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이번 법정 기념일 제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각오다. /정읍=김대환 기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지속 추진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 고창 신기술 보급 우수사업장 현장방문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이 지난 19일 고창군의 신기술 보급 우수사업장을 찾아 농촌융복합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유기상 고창군수, 김학주 전라도농업기술원장과 고창군의 신기술 보급 우수사업장인 청맥(주)과 쌀 맥주 생산업체인 파머스(주), 6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하농원을 방문했다.

보리 가공업체인 청맥(주)를 찾은 김경규 청장은 켈러보리와 고창농축수산물을 이용한 음식(보리바자락밥상, 보리타라족, 켈러보리떡 등) 시식과 사업장 운영현황, 어려움 등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맥(주)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흑두리, 자수정, 강호청 등을 이용한

제품으로 국내 켈러보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켈러보리 단지 100ha를 조성하고 추후 원료곡과 보리가 공제품을 미국, 중국 등지에 50톤 이상 수출해 연 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김 청장은 파머스맥주(주)를 방문했다. 지난해 국내육성 벼 품종 이용 수제맥주 제품개발과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 면적 966㎡에 맥주제조시설, 맥아가공시설, 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현재 연간 2000키를 생산하고 있다.

김경규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촌진흥사업 95개 확정... 분과 별로 심의

정읍시는 2019년도 농촌진흥사업으로 95개 사업 82억 24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일 정읍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농촌사회 등 3개 분과 별로 심의를 가졌다.

심의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식량작물 20개 사업 38억 7300만원, 소득작목 40개 사업 32억 200만원, 농촌사회분야 35개 사업 11억 4천9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 앞서 2019년부터 2021까지 심의회를 이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심의회는 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농업관련 기관장과 농업인단체장, 농과계대학교 교수, 분

야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유진섭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농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농업분야에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술센터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입각해 서류 심사와 현지심사, 발표 심사 등을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철저 분석”

권익현 부안군수, 선제적 대응 통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며 "오는 2022년까지 총액 175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부안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분석해 잘 알아야 어떤 사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후발주자는 의미가 없다"며 "정확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는 한번 선정되면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각 국·관·과·소가 협업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해양수산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

고창군이 내년(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모두 6개 사업에 23억원(총사업비 103억원 상당)을 신청했다.

주요 신청사업으로는 천일염 복합산업화 사업, 수산물(바지락 등) 산지가 공시설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갯벌 식물원 조성사업 등이다.

고창은 바지락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산지다. 여기에 자숙(가열) 바지락 산지가 공시설이 들어설 경우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위생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은 우수한 고창 갯벌에 다양한 염생 식물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자연체험학습장 및 생태관광 기반시설로 활용이 기대되며 2020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이다.

특히, 천일염 복합산업화 사업은 총사업비 40억8000만원으로 해리·심원면 일대에 천일염 열처리 가공시설과 스마트 염전 구축이 핵심이다.

군은 지역의 수산물·해양문화·체험휴양·어촌지역자원과 결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천일염 가격의 전국적 하락현상으로 위기에 빠진 고창 천일염의 제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고창의 농생명문화를 첨단 해양산업과 연계해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specifications.